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 양 대

*영 광 송 / 1장

*성시교독 / 4. 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310장

대표기도 / (1부) 전갑영 집사 (2부) 윤결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사도행전 10:1~8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말 씬 / **“경건한 사람 고넬료”** / 전종남 목사
(Cornelius, a devout man)

찬 송 / 408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218장, 220장 기 도 / 전숙희 권사

성경봉독 / 사도행전 2:46~47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씬 /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 전종남 목사
(They were taking their meals together
with gladness and sincerity of heart.)

■ 저녁 7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정인종 목사

찬 송 / 90장, 380장

성경봉독 / 고린도전서 11:17~34

말 씬 / **“성만찬의 의미”** / 정인종 목사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레위기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심창보 목사

다음 주간 기도

| 주일 1부 | 주일 2부 | 주일 오후 |
|--------|--------|--------|
| 김춘자 권사 | 이상혁 장로 | 정해순 권사 |

예배 위원

| 1월 | 1부 | 2부 |
|----|-----|-----------------|
| 안내 | 박영미 | 유병용 김영화 황하연 |
| 헌금 | 문미경 | 임진수 유경순 이영희 최미진 |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 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 | | | | | |
|------|---|------|----------|--|--|
| 십일조 | 강정원(김신영) 김명순 김성태(김득복) 김승규(차정근) 심창보(유효영) 윤결태(김연주) 이창호 장송자 최환철(이동순) 한지연 | | | | |
| 감사헌금 | 전종남(최경애) 김병숙 김성태(김득복) 김순천(연유희) 김영덕A(이영희) 김영화 김호열(도형) 심창보(유효영) 윤결태(김연주)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 이상혁(송미숙) 이창호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조항훈(정근영) 차정근 최환철(이동순) 한지연 무명1 *작정헌금: 송미숙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조예림 | | | | |
| 교육헌금 | 강순철 김명순 김복례 김숙자 김신영 김영덕A(이영희) 김영덕B 김은립 김정순 김형순 남정욱 노상현 박용분 배복수 송미숙 심창보 연유희 유효영 윤결태(김연주) 윤수길 이동순 이상혁 임진수(정해순) 전숙희 최미진(황인수) 최산기 최영중 최인숙 최환철 한지연 홍종덕 무명1 | | | | |
| 주일헌금 | 한지연 황인수(최미진) | 구역헌금 | 유치 유초 중교 | | |
| 선교헌금 | 심창보(유효영) 윤결태(김연주) 최환철(이동순) | | | | |
| 구제헌금 | 김성학(류윤영) 김형순(신승희) 심창보(유효영) 최환철(이동순) | | | | |

지난 주일 (1/21) 오전예배 설교요약

주님이 택하신 그릇 (행9:10~19)

담임 전 종 남 목사

성경은 하나님을 그릇을 빚으시는 토기장이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롬9:24).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환상 가운데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울이 바로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말씀대로 사울은 위대한 복음 증거자요, 전도자, 교회 개척가요, 성경 기록가로서,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을 위해서 부름 받은 <주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주님이 택하신 그릇은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17절).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봅시다. 그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수기도 해서, 눈을 뜨게 해 줍니다. 구원 받은 신자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됩시다.

2. 주님이 택하신 그릇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담습니다(15절).

그릇의 특징은,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동안 자기의 열심과 아집으로 가득했던 사울의 마음을 비우시고, 성령과 사명을 담아주셔서, 위대한 복음 증거자 바울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도 비울 것은 비우시고, 성령과 사명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중적인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차를 운전할 때는 횡단보도를 늦게 건너는 행인을 욕하고, 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뺑뺑대는 운전사를 욕합니다. 남이 천천히 차를 몰면 소심 운전이고, 내가 천천히 몰면 안전 운전입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꼭 잡혀 살아야 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합니다.

남의 자식이 어른에게 대드는 것은 버릇없는 짓이고, 내 자식이 어른에게 대드는 것은 자기주장이 뚜렷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내로남불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중 잣대가 있다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비우고, 예수님의 평화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택하신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